



마르바 던 세미나

Marva Dawn Seminar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시대의 예배

- 1. 예배 지형도 그리기 | 2.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 3. 포스트모던시대의 예배 공동체

변화된 세상을 위한 기독교 영성

- 1. 멈추지 못하는 삶과 안식 | 2. 약함의 영성 | 3. 공동체 영성



 **한국기독교학생회**

 **국제제자문련원**

초대의 글

한국기독교학생회 IVF는 국제제자훈련원, 한국기독교학회 등과 함께 두 번의 공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사인 마르바 던(Marva J. Dawn)박사는 캐나다 밴쿠버의 Regent College와 Christian Equipped for Ministry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르바 던 박사는 존경받는 신학자, 저자, 음악가와 교육가로서 세계 각지에서 예배, 영성,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해 가르쳐 왔습니다.

마르바 던은 네 개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 MA(Idaho), MDiv(Western Evangelical), ThM (Pacific Lutheran), 기독교윤리학과 성서학 연구로 Notre Dame University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마르바 던 박사의 예배에 대한 책은 미국의 성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권의 책에 포함 되어 있으며 그의 책 Powers, weakness, and the tabernacling of God(복있는사람 번역 출간 예정)은 2002년 미국의 기독교 잡지인 Christianity Today가 선정한 교회/사목 분야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시대의 예배 Worship in Spirit & Truth in Our time"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교단과 교파의 전통을 불문하고 한국 교회의 예배는 어느 때 보다 빠르게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구도자 예배의 등장과 예전의 복귀와 같이 다양한 예배 형식과 강조점 뿐 아니라 예배의 신학과 예배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음악가이며 예배에 관한 탁월한 저술로 기여하고 있는 마르바 던 박사를 통해 현재 한국 교회가 맞이한 예배를 둘러싼 다양한 신학적 관점과 그에 따른 실천을 정리 분석하고 창조적인 대화와 새로운 모색을 시작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영성 Christian Spirituality for a Changing World"라는 주제로 기독교 영성을 다루게 됩니다. 메마른 지성과 향방 없는 뜨거운 감성만으로 빠르게 변화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2000년 교회의 역사와 전통 가운데 숨겨진 신비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갖기 위해 멈추지 말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삶의 방향을 답해 줄 기독교 영성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독특함은 탈색 되어버린 탈기독교사회에서 삶의 의미를 답해 줄 기독교 영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교 영성을 다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마르바 던 박사를 통해 "약함"과 "공동체"를 주목하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려 합니다.

이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각 개인의 삶이 풍성해지며 회복 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국기독교학생회 IVF 대표 김중안 목사

통역자 소개

- 홍병룡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IVP 대표 간사로 일했다.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와 기독교학문연구소에서 공부하였고, 현재 호주국립대학교 한국학 박사 과정에 있다.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무례한 기독교],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사람을 위한 영성](이상 IVP), [완전한 진리](복있는사람)등 다수의 책을 번역하였다.

- 김중호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IVF 간사로 사역하였으며 그 후 미국 올랜도에 있는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현재 IVF에서 선교부와 대외협력부 총무로 일하고 있다.[신세대를 위한 선교 길라잡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영적 멘토링], [추구와 하나님나라](이상 IVP)등의 책을 번역하였다.



〈예배 세미나〉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시대의 예배
(Worship in Spirit & Truth in Our time)

Session 1.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The Core of Worship)

Session 2. 예배 지형도 그리기
(Worship Navigation)

Session 3. 보다 큰 이야기
(The Bigger Story)



강의: 마르바 던
통역: 홍병룡 (IVP)



Session 1.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The Core of Worship] – 시편 95:1-9

침묵: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

A. 삼위의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 (시편 95: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Hebrew = "Yeshua")

첫 번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B.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식의 문제를 넘어서) (시편 95:1-2)

"기쁨의 노래" – 히브리어의 의미 "힘찬 소리를 외치라"

"기쁘게 외치라" – 승리의 소리를 외쳐라, 종교적 충격

"그의 면전에 오라"(히브리어) – 감사함으로 그의 임재 속으로

"기쁘게 외치라" – 시와 찬미와 노래로

기쁨은 예배의 지배적인 동기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예배 형식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C.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Reasons that we praise) – 하나님의 주권 (시편95:3-4)

"대저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 (탐험해야 할 장소)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특히 전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더욱 알아가십시오

-꼭 아늑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Marva J. Dawn
Worship in Spirit & Truth in Our time





D.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Reasons that we praise)

-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 (시편95:5)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에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합니다.

E.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Reasons that we praise)

-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시편95:5b)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모든 거대서사(meta-narrative)를 이야기합니다.

F. 예배는 우리를 완전한 복종과 경외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시편95:6-7)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 또 다른 초청 (하나님은 먼저 초청하신다.)

"우리가 굽혀"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는 권위자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경배하며" - 경외하며 우리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3개의 복종에 대한 동사 후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지요"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지요"라고 할 때 강조점은 공동체(우리)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듣고, 가치를 평가 합니까? - 우리 시대의 자기중심적인 문화에서 벗어납시다.

두 번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G. 예배는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Worship Calls Us Each to Repentance) (시편95: 7b-9)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맛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퍽하게 말지어다 그 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세 번째 예배의 핵심은 개인적인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우상숭배를 버리라고 요청합니다. 심지어는 예배가운데의 우상숭배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요약

우리의 음악적 취향, 교단적 배경, 신학적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예배에 대한 핵심적 원칙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거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찬양 방법이 있지만 기쁨과 감사는 시편을 지배하는 요소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신학적 핵심 원칙은 하나님은 정녕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권은 그의 놀라운 창조와 역사의 통치하심에 나타나있습니다. 예배에 있어 우리는 성경의 일부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거대 담론(meta-narrative)을 읽으며 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원칙은 첫 번째로부터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의 백성으로 빛어집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경배와 복종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세 번째 핵심 원칙은 두 번째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같은 공동체로 빛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 각자는 각 개인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회개와 우상숭배에 대한 죄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빛어집니다. 때때로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정한 예배 스타일 혹은 일정한 음악적 취향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Marva J. Dawn
Worship in Spirit & Truth in Our time



Session 2. 예배 지형도 그리기(Worship Navigation)

침묵;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

A. 예배의 경향(Trends in Worship): 취향과 기호에 따른 분류

- "예배 전쟁(Worship Wars)"

역사적 배경 - 60년대 미국의 대대적인 권위에 대한 거부

보다 많은 음반과 CD를 판매하기 위한 음반회사의 마케팅에 의해
세대별로 나누어진 문화

신학 - 골 3:16과 엡 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예수님의 기도: 배반당하기 바로 전 그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B. 예배의 경향 : "동시대적(현대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그리고 "신흥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 - "현재의 상태"에 대한 반응; 문화와의 부합

자신들만의 음악을 원했던 집단에 대한 반항

기존 자료들이 복원됨에 따라 더불어 나타난 예배에서의 공허감에
대한 반응

신학 - 공간적 시간적으로 교회에서의 거대서사(meta-narrative)에 대한 감각 상실

동시대적(현대적)인 음악은 마치 우리가 지난 5년 혹은 10년 동안 하나님을 창조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전통적인 음악은 마치 하나님이 50년 전에 죽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신흥하고 있는(Emergent) 음악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식을 통합합니다. 그러나
분열을 초래하고 신학을 무시합니다.





C. 예배의 경향: 신학적 실재의 감소, 성경적 기반의 약화

역사적 배경 - 모든 경향들의 주된 이유는 미국 교회의 쇠퇴

지나친 기독교 은사들에 대한 혼란 그리고 호소력에 의한 시도

복음주의와 예배 간의 혼란도 또한 이 모든 경향 뒤에 있다.

신학 - 성경은 우리는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것에 대한 강조(계 1:3) 그리고 말씀에 침잠할 것에 대한 강조
(골 3:16).

가르침의 은사에 대한 중요성과 말씀 전파를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사는 것에 대한 강조

D. 예배의 경향: 의식의 거부; 예배는 찬양과 설교로 줄어들

역사적 배경 - 새로운 변화는 아니지만 반복과 틀에 박힌 것에 대한 거부

때때로 이전 것들에 대한 거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망

신학 - 완전히 의식을 초월한 그런 형식은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형식이 있습니다.

고대 의식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온 것이며, 그 이후에 성찬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 음악을 통한 성경암송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의 가치: 각 요소의 가치

요약

주목할 것은 각각의 경향들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 동시에 신학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회중 각자는 다양한 예배에서의 문제점을 이전 세션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핵심 원칙들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회중의 화해와 전체 교회 공동체의 연합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주의와 예배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둘 다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예배는 당연히 복음주의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대(예수님 시대)의 예배로부터 현대의 예배에서는 (고대의 예배에서의) 어떤 가치들이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배에 가장 잘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Marva J. Dawn
Worship in Spirit & Truth in Our time



Marva J. Dawn
Worship in Spirit & Truth in Our time



Session 3. 보다 큰 이야기 (The Bigger Story)

침묵;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

A. 치유하고(개인 경건) 혹은 관리하는데(생산과 소비의 순환이라는 문화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으로 인한 오해

- * 삶 전체의 상품화 ; 어떤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자기유익을 인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삶을 좀먹습니다.
- * 교회는 개인들이 (교회와) 다른 교활한 경쟁적인 환경에서 의미와 성취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 * 교회는 치유의 안전지대로서 존재하는데, 개인적이지 않으면서 관리해 주는데 적합한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마음이 맞고, 개인적으로 비슷한 필요도가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치유와 희망을 발견합니다. “나 자신”과 “나의 필요도”에 집중됩니다.
- *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소비-생산 순환의 구조 속으로 다시 보냄으로써 사회를 강화시킵니다.
- * 교회는 이러한 소비-생산 순환의 사회에서 개인들에게 균형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원들의 교회에서의 헌신은 단지 자신들의 “필요도”와 맞추어 떨어질 때만 합니다.
- *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충족된 자신에 대한 헌신이 됩니다. - 존라이트의 [하나님의 이야기 전하기]





B. 거대서사 (The Grand Meta-Narrative) – 왜 포스트 모던은 거대 서사를 거부했는가?

기독교의 거대 설화는 압제하지 않고 청중들이 구원에 대한 혁명적인 이야기를 듣고 증거 하도록 도전하며, 온정적이고 정의로우며 평화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개인 경건이나 소비를 뛰어넘은 거대 서사를 필요로 합니다.

- 1 막 전 우주의 창조 – 하나됨, 조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음식
- 2 막 타락, 인류의 타락만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의 타락
- 3 막 이스라엘 모든 문학(시와 예언서)속에 나타난 이야기
- 4 막 중심 : 예수님과 그의 탄생, 삶, 가르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아버지와 성령과의 관계
- 5 막 3막과 같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얘기
- 7 막 이야기의 마지막; 계시록은 우리에게 조금 언급한다. ; 하나님에 의한 우주의 재탄생 ; 하나님이 창조 설계를 완성할 때의 정점
- 8 막 우리가 존재하는 곳;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그의 의도대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거대 서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성품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빛어집니다.

C.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위치 찾기와 거대서사

(Finding our place in the community and the grand faith meta-narrative)

드라마의 각 장이 어떻게 특징을 만들어 가는지 인식하십시오.

대부분의 모든 성경은 복수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은사는 이 거대서사와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부여합니다. 특별한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이것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Marva J. Dawn
Worship in Spirit & Truth in Our time





D. 우리가 세상의 증인이 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가져오며 대안적 사회로서 우리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만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E. 기독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안적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문화를 놀라게 할 만한 차별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 확연히 다른 백성이 되게 합니다.

F. 이런 이해는 우리의 모든 은사를 사용하기 위한 거대한 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은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시각예술, 취향, 향기, 터치, 드라마, 이야기 등을 사용합니다.

G. 아주 아주 오랜 이야기와 새 창조 - 삼위일체의 모든 이야기
우주의 재창조에 관한 삼위일체의 목적 - 새 창조의 단계
예배는 이 새 창조의 총만함을 가지고 오래된 이야기를 펼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영성 세미나〉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 영성
(Christian Spirituality for a Changing World)

Session 1. 멈추지 못하는 삶과 안식

Session 2. 약함의 영성

Session 3. 공동체 영성



강의: 마르바 던
통역: 김종호 (IVF)



Session1. 멈추지 못하는 삶과 안식

- 출애굽기 31:12-18

침묵 ;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

A. 4개의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3개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에 그 뿌리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말씀”이지만 나중에는 “사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4번째 단어는
“아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며, 진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3절a.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킵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B. 안식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13절b.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징표로서 항상 안식일을 지킵니다.
"진실로"는 첫 번째 히브리 단어로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C. 안식일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키두쉬”라는 예식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거룩함을 기념합니다.

14절a.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영원성을 미리
맛봅니다.





D.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주하게 함으로 죽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일, 근심, 어떤 일을 성취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 메시아 콤플렉스 등으로부터 우리를 멈추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4절b.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 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서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부터 하루를 쉽니다.

E. 안식일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고 우리에게도 거룩한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요청합니다.

15절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는 영적인, 정서적인, 지적인, 사회적인, 육적인 휴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F. 안식일은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을 선사합니다.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경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축제로 지킵니다.

G. 이러한 시험은 안식일이 모든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상기시킵니다. ; 안식은 영원한 징표입니다. ; 우리는 안식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지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씌어진(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이라는 표현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게 된 신실한 관계를 향유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킵니다.

요약

위에 제시된 소제목들은 내가 나의 책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기” - 멈춤, 쉬, 향유, 축제에서 발전시켰던 4가지 주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종 전체에 대한 의미로 확장됩니다. “소명에 대한 분별: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안식하는 방법” 이러한 주제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성경봉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대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 시대에 이것들 중에 몇 몇을 함께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바쁜 일정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쉴 때 우리는 더욱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 그가 주신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Session 2. 약함의 영성 - 고린도 후서 11:30, 12:7-10

침묵;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

A. 우리 문화에서 자랑과 권력은 우리가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란히 함께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우리의 주된 목표는 예수님처럼 보고,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장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계속 자랑할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B. 우리가 크다고 아주 우쭐대기 시작할 때 (이것이 비록 영적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괴롭힘은 하나님의 단련하심과 계획 가운데 중요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랑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약함과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가는데 사용됩니다.

C. 우리의 전형적인 반응: 어려움을 좋아하지 않고, 우리의 통제를 약하게 하는 장애를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약함과 고난은 우리의 기도를 깊게 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D.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우라: 통제를 포기하라, 은혜를 신뢰하라, 권력은 끝났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이외에는 어떠한 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 능력과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순종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릅니다.

9절a.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 대한 나의 새로운 번역은 헬라어 “텔레오(teleo)” 그리고 바울이 약함에 관해 말했던 방법과 딱 들어맞는데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도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E. 그 헬라어는 종종 “안식”이라고 번역되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거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은 마치 하나님이 광야와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위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위에 거주합니다.

9절b.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F.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사실을 기뻐하기를 정말로 배울 수 있습니까?

10절a.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이웃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해 준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G. 이것은 완전히 반(反)문화적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더 좋은 모습을 드러내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b.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함이 정말 “역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약한 데서 살아야 합니다.

약함의 영성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통한 어떠한 영원불멸한 역사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Session 3. “공동체 영성” 데살로니가 전서 5:14-28

침묵;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 [그리고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기도

이 세미나의 모든 세션은 철저히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이고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성경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의 영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을 성숙시키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 볼 것입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구절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것은 나머지 세 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권계 받을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위 받을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우리 모두는 평화를 이루는 자(peacemaker)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뛰어넘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항상 혼자서 기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복수이고 계속적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때로 공동체의 지체들은 우리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지체들이 우리에게 왜 기뻐해야 하는 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공동체를 붙들어 주고 공동체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줍니다. 항상, 어떤 순간이든지, 지구 공동체에 속해있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기도대로 사는 것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본문에서 모든 경우(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범사에(in)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for)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나쁜 신학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의 문제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하실 수 있는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감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지 인식할 것입니다.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주 많은 교회들이 언제 어린이들, 혹은 약한 자들,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읍시다.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시대의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시점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도록 부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 예언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공동체는 모든 예언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만약 좋은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불어 예언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으로부터 피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에서 "당신"과 "당신의"는 모두 복수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각 개인으로서의 우리 모두는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으로 잘 보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독 공동체가 강건하면 그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됩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The one who calls you is faithful, and he will do [this]”

헬라이어 성경에는 “this”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가 공동체와 공동체의 속한 지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것입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기독 공동체의 애정은 순결하고 지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대로, 성경을 읽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나 함께 모이는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은혜는 기독 공동체나 우리 개인의 삶 모두를 든든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마르바 던 저서 소개

Joy in Divine Wisdom : Practices of Discernment from Other Cultures and Christian Traditions (Enduring Questions in Christian Life)? / Marva J. Dawn. (San Francisco : Jossey-Bass., c2006) 우물 밖에서 찾은 분별의 지혜 (IVP, 2007)

The sense of the call : a Sabbath way of life for those who serve God, the church, and the world /Marva J. Dawn.(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Pub. Co., c2006.)

Talking the walk : letting Christian language live again / Marva Dawn. (Grand Rapids, Mich.: Brazos Press, c2005.)

Unfettered hope : a call to faithful living in an affluent society / Marva J. Dawn.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c2003.)

Proclaiming the Gospel in a wired world / Thomas M. Beaudoin ... [et al.] (Princeton, N.J. : Institute for Youth Ministr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c2001.)

Powers, weakness, and the tabernacling of God / Marva J. Dawn.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c2001.) (복있는사람 번역 출간 예정, 2007)

The unnecessary pastor :rediscovering the call / by Marva J. Dawn and Eugene H. Peterson ; edited by Peter Santucci.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 Vancouver : Regent College Publishing, 2000.)
겉데기 목회자는 가라 (좋은씨앗, 2001)

A royal "waste" of time :the splendor of worshiping God and being church for the world /Marva J. Dawn.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Pub., c1999.)
고귀한 시간 "낭비" (이레서원, 2004)

The wisdom of the Cross : essays in honor of John Howard Yoder / edited by Stanley Hauerwas ... [et al.].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c1999.)

Confident witness--changing world :rediscovering the Gospel in North America /edited by Craig Van Gelder. (Grand Rapids, Mich. : Eerdmans, c1999.)

I'm Lonely, Lord – How Long?: Meditations on the Psalms (Revised Edition)

/Marva J. Dawn.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Pub. Co., c1998.)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이레서원, 2001)

To walk and not faint :a month of meditations on Isaiah 40 /Marva J. Dawn.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Pub., c1997.)

Is it a lost cause? :having the heart of God for the church's children / Marva J.

Dawn.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Pub., c1997.)

Sources and trajectories :eight early articles that set the stage /by Jacques Ellul ;

translation and commentary by Marva J. Dawn.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c1997.)

A tribute to John Howard Yoder. (Bentley, WA, Australia : Faith and Freedom,

c1996.)

Reaching out without dumbing down :a theology of worship for the

turn-of-the-century culture / Marva J. Dawn.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1995.)

Sexual character :beyond technique to intimacy / Marva J. Dawn.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Pub. Co., c1993.)

The hilarity of community :Romans 12 and how to be the Church / Marva J.

Dawn.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Pub. Co., c1992.)

희열의 공동체 (복 있는사람, 2004)

Holy war in ancient Israel /Gerhard von Rad ; translated and edited by Marva J.

Dawn and John H. Yoder.. [Heilige Krieg im alten Israel.English]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Pub. Co., c1990.)

Keeping the Sabbath wholly :ceasing, resting, embracing, feasting / Marva J.

Dawn.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Pub. Co., c1989.)

안식 (IVP, 2001)

IVF 소개



IVF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나라 운동’이라는 비전을 품고 캠퍼스에서 사람을 길러내어 세상을 변혁하는 초교파적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Community_복음주의 신앙 공동체

IVF는 캠퍼스 복음화, 기독학사운동, 세계선교를 위해 활동하는 복음주의 신앙 공동체로서, 복음주의 정신, 사람을 키우는 사역, 동역하는 공동체, 기독교적 지성, 현장 중심의 자발성, 총체적 복음 사역을 핵심가치로 삼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Movement_세상을 변혁하는 운동체

IVF는 성숙한 신앙인격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들을 배출하여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체입니다. IVF에 속한 학생·학사·간사·이사들은 우리가 속한 가정·교회·직장·학문·사회·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나라의 운동가들입니다.

Fellowship_협의체

IVF는 IFES에 소속되어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회원들과 정신과 비전을 공유하는 협의체입니다. IFES는 각국의 토착적 리더십을 존중하며 전도·제자도·선교를 통해 캠퍼스 복음화와 사회변혁과 세계선교에 공헌하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학생 운동 단체입니다.

Organism_유기적 조직체

IVF는 캠퍼스 복음화를 감당하는 학원 사역부, 졸업생들의 삶과 사역을 지원하는 학사회, 양질의 선교인력을 배출하여 세계선교에 기여하는 선교부, 성경적 지성과 영성을 보급하는 출판부, 성경적 문화를 주도하는 미디어 사역부, 그리고 18개의 지방회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나라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유기적 조직체입니다.

Partnership_협력체

IVF는 캠퍼스 복음화와 세상의 변혁을 위해 지역교회와 선교사 파송기관, 복음주의 단체들과 긴밀하게 동역하는 협력체입니다. IVF는 캠퍼스에서 인재들을 길러내어 지역교회와 전문선교단체, 직업의 현장과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의 모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